■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보지 못하나 복된 자들　　성경: 요한복음 20장 24~29절

Tag:

24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의미도 된다. 의심하는 수고로움이 싫은 것. 의심하는 것 자체를 피곤하게 여기는 것. 의심으로 말미암은 스트레스, 의심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정신적 에너지가 크고, 의심에 대한 합리적인 가설들이 많아야 한다. 오늘날 진화론에 대한 가설들이 많은 것도 이런 맥락.

혹은,(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순전한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단순하고 뭐든 긍정적이고 좋게만 보려는 사람일 수 있

다.

그런 의미에서 도마는 틀림없이 묻고 따져 본 다음에 믿는 자.

도마 소개

-놀랍게도 도마는 4복음서 중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

-나머지 3개 복음서(사도행전 포함)에서는 이름만 한번씩 등장함. 그것도 제자들의 출석부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는 제자.

-그에 비해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8회나 도마의 이름이 등장. 요한복음에는 출석부 자체가 없다.

> 16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요11:16)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 말.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으면서, 유대인들과 당국자들과의 마찰로부터 피해 있었다. 당시의 분위기는 사뭇 조심스러운 분위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려고 하셨는데, 도마는 우리도 죽으러 가자고 외쳤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띠엄 띠엄 이해하는 자였나 보다.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기획하셨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로소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셨다. (살리러 가자는 뜻으로)

-그런데 도마는, '나사로마저 죽었으니 예수님도 죽으러 가시나 보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끔찍하게 아끼셨다. 베프)

-아마 도마는 예수님의 의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미리 짐작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한 말일 것이다.

-어쨌든, 도마는 죽기 위해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하는

일인만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자기로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도 다짐하고, 동료 제자들과의 의기투합을 위해 한 말일 것이다.

-누구보다도 앞장서며 베드로와 함께 충성심이 큰 제자다.(베드로 바로 다음에 도마가 언급된 구절이 몇 있다.)

> 5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14:5)

이 구절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는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는 말로 이해하였고(역시 띠엄 띠엄 증후군; 의심이 많고, 질문이 많고, 헛말이 튀어나오고, 하나 하나 꼼꼼히 살피는 증상. 일의 능률은 적으나 실수도 적은 증상.), 그 지역과 지명을 말씀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다. 지역명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도 가지요...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고, 도마의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은 각기 흩어졌고, 자신도 급히 도망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을 은신처로 삼았지만, 도마는 곧장 고향으로 도망친 것으로 보인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도마를 제외한 열 제자는 마가의 다락방을 은신처로 삼았지만, 그 외의 제자들은 각기 고향 앞으로 갔으며, 도마도 그랬을지 모른다.

-그래서 제자들 중 도마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에 없었다.

-흔히들 의심많은 도마라 하는데, 의심증상은 열한 제자가 모두 똑같았고, 다만 도마만 예수님이 나타나신 현장에 없었을 뿐이다.

-도마도 다시금 예루살렘에 되돌아와서 동료제자들을 찾았고, 동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듣고서는 믿지 못했다.
-단순히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특유의 띠엄 띠엄 증후군 때문에, 예수님의 손바닥의 못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고, 옆구리의 창 자국에는 손을 직접 넣어 본 다음에야 믿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등장하셨다. 동일하게 먼저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다음에 바로 도마에게 가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시고 만져보라 하셨다.

> 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8절 말씀은, 도마의 신앙고백이지만, 요한복음의 목적에 해당하는 말이다.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언급한 내용이다.

>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1:1)

28절, 29절이 요한복음의 결론부분이다.
묻고 따지기 좋아하는 질문 많고, 열정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믿음이 확신이 되었다.
-도마는 일주일동안 혼자 깊은 상념속에 지냈을 것이다. 이리 저리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해보았을 것이다. 이성적인 결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심을 증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모든 이론을 허물어버리는 사건이었고, 물거품처럼 변하고 말았으며, 자신의 헌신 또한 송두리째 무의미한 것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부활 증언은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이나, 직접 만져봐야 하겠다는 선언은, 한편으로는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는 몸부림이었다.
-이제 손수 예수님의 부활을 만져본 도마로서는 희열에 가득한 신

앙고백이 터져나왔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29절 말씀은 도마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다.
왜냐면 도마 이후로 아무도 예수님의 손을 만져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도마와 같은 영적이면서도, 의학적인, 현실적인, 역사적인 체험을 통해서 진실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띠엄 띠엄 도마의 예수님 경험과 똑 같은 경험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도마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만약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겠다는 사람은 도마 경험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도마와 같은 확신에 찬 신앙고백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도마처럼 띠엄 띠엄 성경을 연구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그러나 차근 차근 하나 하나 따지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의심할 수 없는,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사건이 사건을 증거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결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빌라도가 짜고 치면서 성경이라는 가상의 소설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의심이 많을수록, 꼼꼼히 따져보는 성격일수록, 그는 도마의 고백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들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아닌, 보지 못하나 믿는 믿음이다.

-오늘날에도 천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 도마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차근 차근히 성경을 연구하면 그는 도마와 같은 확신에 찬 신앙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

-도마와 같은 여러분. 도마처럼 볼 수 없지만, 도마 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도마가 열어 놓은 복)

-도마의 이야기를 듣고, 도마의 신앙고백과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도마보다 훨씬 복된 신앙인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조지 휫필드의 설교 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

Tag:

선린교회이(가) 예약된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주제: 주일예배

시간: 되풀이 회의입니다. 언제든 회의 가능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7618540169?pwd=enByS1R6L3hYcTZURXRLQUNlQlRRQT09

회의 ID: 761 854 0169

암호: 9182

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행3:19)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

d=jswoo001&logNo=221485726021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 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네..." 조지 휘트필드, 휫필드.

명설교자의 중생 설교/ 조지 휫필드
- 회개와 회심 -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3:19)

■ 위대한 설교자들이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하는 영국의 조지 휫필드(G. Whitefield)의 설교문이다. 휫필드는 병약한 가운데서도 약 30년에 걸쳐서 약 3만 번의 옥외설교를 주로 했는데, 이는 1년에 1천 번 이상, 매일 서너 차례, 마이크 없이 수천에서 수만의 회중들에게 6~8시간씩 설교한 것을 의미한다. 휫필드의 설교현장에는 설교문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하심, 많은 회심의 열매들이 있었다. 언젠가 한 출판업자가 그의 설교집을 출판하자고 제의하자, 휫필드는 현장의 '천둥과 번개'를 담을 수만 있다면 그리하라고 말했다. 비록 설교문만으로는 그의 천둥과 번개를 느낄 수 없지만 이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만나는 것만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설교는 지면의 제한상 휫필드의 설교를 삼분의 일로 재구성한 것이다. - 필자 주 ■

오늘날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초대교회 설교자들의 방법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사도들이 행했던 성공적인 설교의 방식은 현재 전혀 강단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학식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포함한 회중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중들을 향하여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생명의 주님을 죽인 무서운 죄에 관여했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 함을 받으라"(행 3:19)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분명한 사람을 향해서도 회심을 설교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메리카로 가시오. 그곳 원주민들에게나 가서 회개와 회심을 설교하시오. 저 길거리나 들판으로나 가시오. 술주정뱅이들에게나 회심을 설교하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 설교하지 마시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은 누굽니까?"라고 물어야 할 차례입니다. 성령께서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뿐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심을 설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에게 화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회심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종이 회심이 아닙니다.

자신이 회심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수만이 되지만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 그다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국교회로, 국교회에서 비국교회로 옮겨가는 것을 회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일은 여전히 한 교파에서 다른 교파로 개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관심 밖입니다. 이런 회심은 한 파에서 다른 파로 바꾸는 것일 뿐,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 이끄는 참된 회심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교리에서 다른 교리로 바꾸는 것을 회심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교리에 열심히 매달릴 수 있지만, 교리에만 매달리면 회심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2. 진정한 회심이란?

1) 죄에 대한 자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참된 회심은 언제나 '죄에 대한 각성'(conviction)이 '영적 각성'(conversion)에 선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를 깨닫고도 회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죄를 깨닫지 않고서 회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악된 자아뿐 아니라 회심을 위해 우리의 의로운 자아로부터도 돌아서야 합니다. 이 의로운 자아야말로 마귀들 중의 마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 듣기를 싫어하며, 복음 설교자에 대해 그토록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최대의 적은 바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에 대항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군중을 선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무섭게 선포하십니다. 이와같이 말씀 사역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긋고,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외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벗어버리지 않고서 회심했다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련하고 버림받고 파멸된 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가 입혀주시는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중보자의 의를 우리의 영혼에 전가하는 이 일이 바로 죄로부터의 거룩한 회심입니다.

2) 회심한 자는 그 증거를 드러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로 회심한 사람들,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그들의 회심의 증거를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은혜가 심어질 뿐 아니라 이 은혜가 영혼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전 영역에서 반드시 우주적 변화를 빚어냅니다.

3) 지옥에서 천국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회심은 사람이 자신의 뜻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교자의 도덕적 권고의 결과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마음의 참

된 회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요 3:5)

회심은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가게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돌이켰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돌이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리듯, 구속자의 정원에서 자라는 그의 꽃들은 항상 태양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선한 생명과 따뜻함,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3. 회심치 않은 삶은 지옥입니다.

누군가 "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회심하지 않고서는 이후의 삶이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맞아 하늘나라에 갈 때에 대체 그곳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스코트 박사(Dr. Scott)는 말했습니다. "만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간다면 그곳은 그 사람에게 지옥과 같은 곳이 될 것이다. 거기에는 그토록 싫어하는 천사들도 있고, 그토록 싫어하는 하나님도 계신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지옥을 피신처로 삼고자 찾아가고자 할 것이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회심하든지 아니면 정죄를 받든지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의 주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더욱 단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6) 바로 이 표현이 우리 주님이 쓰신 표현입니다. 그 분은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 '정죄를 받는다'는 심판의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청중은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이 어떤 사람들을 혹시나 거슬리게 하지 않을까 해서 사용하기를 주저합니다.

4. 회심을 사모하십시오.

1)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리면 되겠다고 하지만 아침이 되기 전에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2,3일 전에 제게 심한 욕과 저주를 퍼붓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 은혜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받지못한 사람들은 "주님, 우리는 회심이 무엇인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설교자들이 증언하기를 "주여, 우리가 설교하였지만 저들이 듣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2) 회심한 자들에게

이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루 매시간 시간마다 회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것처럼 죽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세상과 짝하는 것으로부터, 그 마음이 미지근한 것으로부터 돌아서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회심을 했던 안했던 간에 만약 지금 여러분이 악한 길에 빠져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3) 회심의 절대 필요성을 서로에게 말하십시오.

젊은 청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개시키시

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동시에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중년의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들어 백발이 되어가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회개시키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죄가 깨끗해진 것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심시켜만 주신다면 저의 생명 다해 이 시간 죽도록 설교해도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사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꽃을 피워 하나님을 향해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